

3-24-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에베소서 2:12-19

말씀제목: 세상에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최상의 복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 알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드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요 17:3)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창조 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첫 사람 아담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눅 3:38)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습니다(창 2:7).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창 3:24)

그러나 만물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후 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 모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또 천 년이 지난 후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이시며 테초에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아담의 모습으로 죄악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진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게 하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의인들이라 여겼던 위선자들에게 그들 양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들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막 7:20-2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 영접하는 것만이 영생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요 1:11-13)

사도 요한은 육신의 뜻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 아담의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받아 첫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저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벧전 1:23-25)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주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고전 15:1-5)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지체일지라도 지체가 된 사람들은 대 환란에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환란 전에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늘로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선악 간에 행한대로 보상을 받은 후 어린양의 혼인식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후에 대 환란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이 지상에서 므나를 남긴 만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8)

아멘! 할렐루야!